

# 광주 백화점 겨울 정기세일서 활짝 웃다

### 외투·해외 패션 브랜드 매출 신장 이끌어

### 전년보다 롯데 10% 증가, 신세계도 상승세

백화점이 겨울 정기세일에서 활짝 웃었다. 이른 추위에 외투와 해외 패션 브랜드가 매출 신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9일, 지난달 22일부터 12월8일까지 진행된 송년 세일 매출이 작년 겨울 정기

세일 때와 비교해 각각 0.2%와 10.0% 신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동(冬)장군의 기세에 따라 겨울 준비, 옷을 사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패션 상품군의 신장이 눈에 띄었다. 특히 중저가 겨울의류 상품의 인기가 두드러졌으며, 20만원

대 패딩 제품이 전년 대비 약 20% 가량 신장해 아웃도어 장르의 매출 신장을 견인했다.

품목별 매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구스이불을 비롯한 겨울용 수예품목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생활품목 매출이 31.6% 가량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식품품목에서도 장기 경기를 타격하며 반영된 실적형 기획상품들이 잘 나가 13.8%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하락세에

있던 해외명품이 신장세를 보이는 등 오랜만에 두 자릿수 매출 실적을 올렸다.

가전을 중심으로 한 방한용품이 큰 폭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면서 실적 향상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상품군별 매출을 살펴보면 가전 상품군이 35%, 패딩을 중심으로 한 아웃도어가 27%, 스포츠 의류 25%, 패션 잡화 18%, 여성의류 17%, 남성 캐주얼 의류 15% 등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매출 하락세를 보였던 해외명품 매출이 큰

폭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는 것이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던 해외명품 매출은 25% 이상 큰 폭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면서 큰 손 고객의 소비가 차츰 회복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고은성 롯데백화점 광주점 홍보과장은 "세일 초반 때 이른 한파가 오면서 방한용품이 큰 폭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면서 이번 정기 바겐세일 매출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연임 유력

### 산자부에 승인 요청

유동국(50)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의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테크노파크 이사회(이사장 강운태 광주시장)는 최근 유 원장을 차기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산업자원통신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산자부는 현재 유 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중이며 이번 주 내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유 원장이 인사검증을 무난하게 통과할 것

으로 전망중이다.

앞서 테크노파크 원장 추천위원회(위원장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는 유 원장을 1순위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했다. 차기 테크노파크 원장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3년간이다.

유 원장은 전남매일 대표이사 겸 발행인, 강운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4년간 산자부의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의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양원예농협 수출물류센터에서 김영배조합장(가운데), 이승룡소장(오른쪽), 김종원팀장(왼쪽)이 선별된 파프리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 힐링채소 파프리카 600t 출하 25억 매출 기대

### 도곡·광양원예농협, 수도권 하나로마트 등 공급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는 9일 도곡농협과 광양원예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13 파프리카 연합사업' 첫 출하를 실시했다.

이날 광양원예농협 산자유통센터에서 선별 및 포장된 파프리카는 농협중앙회 청과사업단을 통해 수도권 하나로마트 등으로 출하됐다. 전남농협 연합사업단은 내년 7월까지 600t의 출하량과 25억원의 매출액을 올릴

계획이다. 겨울철 파프리카 주산지인 전남지역의 경우 8월말에서 9월초에 이루어진 정식 이후 9월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일부 재배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이후 기상여건이 대체로 좋아 현재 양호한 생육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본격적인 출하를 준비중이다.

전남농협 박종수 본부장은 "빨강, 노랑, 주황의 화려한 색깔로 소비자

를 유혹하는 파프리카는 눈 건강과 알 예방 및 피부미용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힐링 채소"라며, "2년째에 접어드는 파프리카 연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매김하여 파프리카 생산 농업인의 수취가격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농협은 작년 파프리카 연합사업 출하량 500t, 2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축산농협, 광산구 신촌동 이전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은 9일 오전 광산구 신촌동에서 각 기관장과 축산농가, 고객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개점식을 가졌다.

광주축산농협은 55년전 동구 학동에 최초로 설립돼 중흥동과 송암동을 거쳐 지난 1991년 학동으로 본점을 이전해 23년간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후 동구 학동3구역 재개발에

따라 본점을 광산구 신촌동으로 이전하게 됐다.

안명수조합장은 "새롭게 탄생하는 광산 본점의 개점식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과 내실을 다지는 전환점으로 삼아 고객님과 조합원들에게 훨씬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최상의 고객만족정신을 갖고 모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000.38(+19.97)	▼ 코스닥지수 502.23(-4.09)	▼ 금리(국고채 3년) 2.98%(-0.03)	▼ 원·달러 환율 1053.00원(-5.00)
----------------------------	--------------------------	------------------------------	------------------------------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3 가족친화기업 수여식'에서 금호고속이 업계 최초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이덕연 전무(왼쪽에서 세번째) 등 직원들이 상패를 들고 있다. <금호고속 제공>

## 금호고속, 업계 최초 가족친화기업 선정

금호고속이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주관 '2013 가족친화기업 수여식'에서 고속버스 업계 최초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금호고속은 기업의 가족친화 조성 정도 및 출산 및 양육 지원, 임직원의 만족도 등의 사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금호고속은 사내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단체 보장성 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 축하금, 보육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다양한 가족 초청행사를 여는 등 직장환경

을 가족 친화적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했으며 회사 구성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덕연 금호고속 전무는 "직원과 가족이 행복해야 고객 행복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여러 복지 제도를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호고속이 업계에서 가장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없어진다

### 환경부, 2016년부터

경유차 한대당 연간 10만~80만원씩 매기던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부담금 운용심의회위원회에서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포함한 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부담금이다.

경유차의 경우 2500cc 차량에는 14만4000원, 3500cc 차량 20만1000원, 1만cc 이상 차량 57만4000원 가량이 부과되고 있다. 다만 유류연합 배기규제 기준인 '유료'를 충족시키는 차량은 면제받는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걷은 돈 6723억원 중 경유

차 부담금은 75.3%(5060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경유차 소유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중부과에 해당하며 미부과 대상인 휘발유나 LPG, 천연가스 차량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중부과 등 지적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해당 부담금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유차의 오염물질 발생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폐지 근거가 됐다. 경유차뿐 아니라 시설물의 용수와 연료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2015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지금은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은 연료 사용량과 용수 사용량에 오염유발계수 등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연간 1만원에서 1억원까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시설물 용수 부담금은 1247억원, 시설물 연료 부담금은 416억원이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왕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결혼 정보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희망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성사율 호남1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 회원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번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업,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b>여</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번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스타유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b>남</b>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b>여</b>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 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을행 옆 무례츄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